



제이월드텍 '베네프 진공 블렌더'

영양소 파괴 않는 진공 믹서 ... 美·유럽서 러브콜

믹서로 불리는 블렌더는 모터로 과일 채소 등을 갈아 주스로 만든다. 분쇄 과정에서 재료가 공기와 접촉해 산화되는 단점이 있다. 이때 영양소가 파괴된다. 대다수 블렌더 몸체는 플라스틱이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누렇게 변색되기도 한다. 소형 가정용 제품인 제이월드텍이 선보인 베네프 진공 블렌더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은 제품이다. 10억원 넘게 투자했고 개발에만 3년 이상 걸렸다. 이 제품은 유럽 등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오고 있다.

◆공기 빼내 진공 상태에서 분쇄 베네프 진공 블렌더의 원리는 간단하다. 과일 채소를 갈기 전 4초 정도 분쇄 용기의 공기를 제거해 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런 다음 여는 믹서처럼 초고속으로 분쇄한다. 재료의 산화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식감도 훨씬 부드럽게 해준다. '순간 동작' 리듬 블렌드 같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마늘 인삼 등 기존 믹서로는 잘 갈리지 않는 재료까지 쉽게 분쇄한다. 몸체는 유리 재질이어서 위생적이고 오래 사용



한석재 제이월드텍 대표가 진공 블렌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45초간 용기 속 공기 제거 ... 산화 막아 영양소·맛 유지 10억 이상 투자해 3년 개발 ... 올해 국내 시장에도 출시

할 수 있다. 한석재 대표는 "진공 믹서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며 "기존 블렌더 회사들이 신경 쓰지 않던 틈새시장을 개척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월드텍은 진공 및 실링 기술 특허 두 건을 출원했다.

지난해 출시한 베네프는 해외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시작했다. 한 대표는 "독일 소비재박람회인 암비엔테와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에 출품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스제이월드텍-베네프 진공블렌더 (031)431-8988 스그레블코리아-신개념 교육완구 끄레블 070-4790-5001 스한성비씨씨-이지 119 산소마스크 (055)295-3173 스비체룸-팬모더 070-8688-7107

말했다. 국내에서도 연내 판매를 시작한다. 가격은 50만원이다. 한 대표는 "브랜드 이름인 베네프는 '더 나은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베네프 브랜드로 커피머신 등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럽·미국 등으로 수출 제이월드텍은 1997년 설립된 소형 가전 제조업체다. 처음엔 밥솥용 부품을 제조했는데 사업 분야를

점차 넓히고 있다. 블렌더를 비롯해 이미용기기 등 소형 가전 30여 개를 제조한다. 작년 매출은 155억원이었다.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사후서비스(AS)에도 각별히 신경 쓴다. 한 대표는 "오래전 판매 제품이라도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고쳐준다"며 "제품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히트작은 2013년 선보인 '뽕 고대기다. 초기에 100만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머릿속이 열광을 넘어 화상 위험이 없고 머리카락이 회전하면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비결이었다. 2004년에는 국내 최초로 소형 손잡이 믹서를 개발했다. 믹서 용기에 텀블러를 접목해 휴대가 간편한 '굿모닝 믹서'는 지금도 인기를 끄는 대표 상품이다. 내년엔 공장을 확장해 이전한다. 한 대표는 "우리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을 선보여 생활가전 틈새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정은 기자 ikesmile@hankyung.com

황반변성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 미국서 임상

FDA에 임상3상 계획 제출 2022년께 본격 시판 예정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개발에 나선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대표 고한승·사진은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SB11(프로젝트명)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황반변성은 노화, 유전적 요인, 염색체 이상 등으로 망막 시세포가 집중된 황반에 변성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시력을 잃는 안질환이다. 대표적인 치료제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 계열사인 제넨테크와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한 루센티스다. 라니비주맙을 주성분으로 연구 내 유리체

에 따르면 루센티스는 2015년 기준 세계에서 38억달러(약 4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시장 규모도 연 200억원 이상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는 9월부터 50세 이상 신생 혈관성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SB11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9년 4월까지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2020년 2월 종료 후 목표표 하고 있다. 임상 종료 후 판매 허가까지 약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SB11 시판 시기는 2022년 전후로 전망된다.

루센티스는 내년부터 국가별로 물질을 조성물 특화가 완료되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작년 7월 루센티스에 내성이 생겼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바이오메터(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IDB0062의 전 임상에 들어갔다. 바이오 벤처 기업 바이오큐아팜도 작년 말 터키 제약사와 라니비주맙(마이알)에 100만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가구에서 주무셨군요?" ... 에이스의 '침대 전쟁'

뉴스카페

에이스침대가 이달 들어 온라인에 공개한 동영상에 화제가 됐다. 지난달 말 선보인 '케어'편은 1주일도 안 돼 유튜브 조회 수가 21만 건을 넘어섰고 '사무실 회의'편, '엄마와 아기'편, '키보드'편 등도 8만 건을 훌쩍 넘었다.

사무실 회의 편은 회의 중 졸던 직장인이 박수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지지 않는 척하는 내용이 담겼다. 15초 분량 영상이 끝날 즈음 '어젯밤 가구에서 주무셨군요?'라는 멘트가 나온다. 매트리스가 부실하면 침대가 아니라 '보기 좋은 가구'에 그친다는 메시지를 위트 있게 전달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은 점이 부족해 피곤해지는 직장인과 주부, 아이 등이 겪는 네 가지 에피소드로 제작됐다. 회사 관계자는 "침대가 숙면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스침대는 1993년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에이스침대, 바이럴 영상 공개 가구 경쟁사들 침대시장 넘보자 '침대는 과학이다' 마케팅 강화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 네편도 온라인을 통해 바이럴처럼 퍼진다는 의미의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 시도.

국내 침대시장 1위 업체인 에이스침대가 공격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나선 것은 최근 다른 가구업체들이 침대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요즘 가구업체의 핵심 상품은 침대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들은 "침대는 가격이고가여도 좋은 제품으로 장만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붙박이장(드레스룸)과 싱크대, 부엌장 등을 빌트인으로 갖춘 경우가 많다. 1-2인 가구가 늘고 집값 상승으로 소형 주택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가구를 줄이는 추세다.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요즘 신혼부부 중에는 과거 필수품으로 꼽혀던 소파 등을 아예 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밤에 편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 때문에 침대만큼은 수백만원짜리 고가 제품이어도 저항감이 적다.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동침대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고급 매트리스가 연이어 출시되고, 코웨이 등 방문판매 유통망을 갖춘 일부 회사가 침대 렌탈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하반기 주식투자 어떻게...

2017 한경 주식투자 강연회

국내 최고 증권사 투자전략가와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들이 성공투자 전략과 유망종목을 제시합니다

참가대상 · 국내 및 해외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참가비 · 없음(선착순마감, 발표자료집 무료제공)
 참가신청 · 홈페이지(http://event.hankyung.com)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02-360-4517

| 일자 | 지역 | 장소 | 14:00~15:00 하반기 국내 증시전망 및 투자전략 | 15:10~16:10 하반기 해외 증시전망 및 투자전략 | 16:20~17:20 하반기 유망주 추천 |
|------------|----|--------------------|--------------------------------------|--------------------------------------|---------------------------|
| 6월 10일 (토) | 서울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 | 최승욱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
| 6월 17일 (토) | 부산 | 백스코 컨벤션홀 101호 |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이사 | 이승우 미래에셋대우 해외투자전략팀 수석매니저 | 민경무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
| 6월 24일 (토) | 대전 | 대전컨벤션센터 105호 |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 | 최현재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장 | 오재원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
| 7월 1일 (토) | 대구 | 엑스코 324호(신관) |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 | 김도현 삼성증권 해외투자팀 수석연구위원 | 이경탁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출동반) |
| 7월 8일 (토) | 광주 |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308호 |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 김명일 글로벌전략팀장 | 이홍근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

동성코퍼레이션, 운동화 쿠션창 소재 시장 진출

고탄성 TPU품 개발

동성그룹 지주회사인 동성코퍼레이션이 연간 4조원 규모의 운동화 중창(미드솔)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동성코퍼레이션은 초고탄성 열가소성폴리우레탄(TPU) 폼 개발에 성공, 국내 특허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TPU 폼은 에틸렌-아세트산비닐(EVA) 등 기존 운동화 중창 소재

보다 탄성력이 20% 뛰어나고 부드럽다는 평가다. 다른 소재보다 제작 공정이 단순해 운동화 등 자동화된 제화 공정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중창은 운동화의 쿠션감을 결정하는 소재다.

회사 관계자는 "TPU를 중창 소재로 처음 상용화했다"며 "중창 시장의 주도권이 EVA 소재에서 TPU

폼으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유명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 운동화 적용을 위한 최종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동성코퍼레이션은 TPU 폼을 앞세워 자동차 부품시장도 개척한다는 각오다. 시트 쿠션 등에 적용하면 승차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에코바스, 옥실용 천장재 출시

간지재 제조업체 에코바스가 시계를 부착한 옥실용 천장재 에코타임을 출시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시트를 진공 성형해 개발한 친환경 ABS 소재를 사용해 물이 닿아도 썩지 않으며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습기에 강하다. 조명 역할도 하기 때문에 따로 조명을 달지 않아도 된다. 천장 뒷면에 흡음재를 넣어 위층

의 번기 물 내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을 차단 기능이 있다. 옥실 정화를 위해 음이온이 방출된다. 광원택 에코바스 대표는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로 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이라며 "품질을 인정받아 중국 몽골 호주 뉴질랜드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ikesmile@hankyung.com

해외전시판매장 입점처 모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3일까지 해외전시판매장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 미국 판매장과 오는 8월 개설하는 싱가포르 판매장에 입점하고 싶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은 상품소식시스템 홈페이지(b2c.gobizkorea.com)에서 하면 된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